

농촌 지역사회 주민역량 특성 분석

김두순* · 김성록**

Characteristics of Rural Community Capacity

Doo-Soon Kim* · Sung-Rok Kim**

요약 : 주민들의 참여를 원리로 하는 상향식 농촌 마을 개발에 있어 주민역량은 성공적인 농촌 마을 개발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역량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군집 간 차이도 분석하는 것이다. 리더 경험이 없는 주민 25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농촌 지역사회의 주민역량을 분석한 결과 직무 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조직 몰입 역량, 조직 융화 역량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다시 군집 분석한 결과 역량 고 집단(n=136, 54.2%)과 역량 저 집단(n=115, 45.8%)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역량 고 집단에 속하였다. 또한 역량 고 집단이 지역사회 애착심,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사회 관여도, 그리고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농촌 마을 개발의 성공을 꿈꾸며 마을 현장을 누비는 현장활동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농촌 지역사회, 주민역량, 역량 특성, 요인분석, 군집분석

Abstract : Rural community capacity is a core element for a successful rural community with regards to the development of a bottom-up rural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capacity in rural communities by classification as well as the disparities between clusters.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surveys on 251 residents with no leadership experience. The results were deducted the factors of job resolution capacity, communication capac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capacity, and organizational harmony capacity. The results of analyzing these clusters, in turn, resulted in a high capacity group (n=136, 54.2%), and a low capacity group (n=115, 45.8%). The high capacity group consisted of males and high income earners. Also, the high capacity group was revealed to score higher in community attachment,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involvement, and community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s useful for community activist of rural communities while dreaming of their success.

Key Words : Rural community, Community capacity, Capacity characteristic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I. 서론

농촌 개발에 있어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중앙 정부 중심의 거시적 지역 개

발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상향식 접근법의 최종 목적은 인구, 경제, 개발 구조에 대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Mannion, 1996).

*충청남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 The Rural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 of Chungcheongnam-do, civservant@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isoiso@kongju.ac.kr)

상향식 개발의 주체는 공동체(community)이며(Friedmann, 1987; 1992; 김영정, 2008), 공동체 주도의 필수 구성 요소는 지역 주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capacity)이다(Murray and Dunn, 1995). 그 중 지역사회 역량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참여하고 협동하게 되는 힘으로 정의하였고(Minkler, 2004),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는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Newlands, 1981).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발전방향에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가며,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마을의 발전 계획을 체계적이고 진취적으로 수립한다(김두순, 2016).

농촌 주민역량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역량분석에 관한 연구(조영숙 등, 2008; 김민 · 이희정, 2016; 김정희 등, 2016; 박대식 등, 2016), 역량강화 전략에 관한 연구(이원주 · 이유직, 2013; 박수진 · 나주몽, 2014),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소순열, 2010; 오형은 · 김용근, 2015; 조소진 · 정환영, 2017)가 있다. 농촌 마을 관련 연구에서 주민역량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농촌 마을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로 리더의 역량 연구에 주목해 왔다(허장 · 정기환, 2003; 박은식 등, 2006a; 박은식 등, 2006b; 박한식 · 김남조, 2008; 오승영 등, 2010; 윤준상 등, 2015; 윤준상 등, 2017). 그러나 주민역량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촌 마을 사업은 마을 만들기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촌 마을의 개발에서는 주민들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고, 그 성공 요인은 지역공동체의 역량 수준에 달려있다. 지역공동체 역량이란 리더와 주민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전체 역량을 말하므로, 리더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의 항목이나 구체적인 역량 강화 방법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 마을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동체 파괴 현상들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 및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농촌 지역 개발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이 형평성에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으로 변화됐다. 이는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를 통한 마을 개발 흐름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주

민 조직의 법인화 요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마을 리더와 주민의 역량을 통해 마을의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 등이 강조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리더가 마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마을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마을 발전 방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반되는 각종 회의, 교육 등의 개발 전반의 행위를 직접 수행도 해야 한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 내에서 마을 개발 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마을에서 마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역량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군집 간 차이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과 상향식 개발전략(Bottom-up Approach)

지역사회개발은 개발 내용 면에서 경제, 기술, 사회, 문화면에서의 계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개발 단위나 개발 방법 면에서 지역 주민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의 특색 있는 과제를 지역 주민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anders, 1958). 그 외에도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향도개선과 비슷한 것이라는 정의가 있고(Batten, 1957), 지역 사회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자기주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라는 정의도 있다(Dunham, 1960). 또한 주민들이 자기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지역사회개발이라고 보았다(Cary, 1976). 즉,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지역사회의 물질적·재정적·인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의 여러 자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리된다(Cavaye, 2006).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한 접근법에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일으킨다는 상향식 접근이 있다. 주민 스스로 조직화하여 개발 수단을 모색하고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개발 방법이다(이현정, 2013). 따라서 지역주민의 기본 수요 충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며, 자주적이며 내부

지향적인 개발 방식에 기초하여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적, 제도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이양수·최외출, 2013).

또한 지역사회개발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상향식 개발이 언급되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은 책임 있는 리더십이 상향식 개발 방식과 맞물릴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진정한 공동체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Yang, 2016).

2. 조직구성원의 역량(Capacity)과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역량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인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나뉜다(김두순, 2016).

개인의 역량은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만들어내는 내적 특징을 말한다(McClelland, 1973; Boyatzis, 1982; Jacobs, 1989; McLagan, 1989; Fletcher, 1991; Spencer and Spencer, 1993; Parry, 1996; Green, 1999; Lucia and Lepsinger, 1999; Schippmann, 1999).

지역사회 역량은 거시적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인적 자원, 조직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Kretzman and McKnight, 1993; Goodman *et al.*, 1998; Chaskin, 2001; Minkler, 2004). 조직구성원의 역량은 미시적 입장에서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 형태로는 Spencer and Spencer(1993)가 제시한 200개 업무 중 관련 역량 요소를 추출하여 6개의 역량 군으로 정리한 역량 사전에서 조직구성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을 조사 항목으로 도출해서 진행하는 연구 형태(오현석 등, 2010; 김정남 등, 2012; 서명선, 2015; 박찬욱 등, 2015; 손성곤 등, 2015)와 조직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세분화하여 구성원의 역량, 조직 성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의 세부 요소에 따라 해당 연구 결과를 벤치마킹하는 연구 형태(유재두, 2011), 그리고 유사한 조직에서 개발된 연구를 선정해서 Dubois의 일반모델 덧씌우기 방법에 의한 연구 형태(윤정현, 2008; 이순희·심지현, 2016)가 있다.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역량강화란 개인이나 집단이 능력이나 힘 또는 권한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며 수행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정의 한다(Newlands, 1981; Staple, 1990; Rapp *et al.*, 1993; Mondros and

Wilson, 1994; Murray and Dunn, 1995; Gannon, 1998).

역량강화가 전문화(세분화) 된 개념으로 역량축적(capacity accumulation)도 있는데(김두순, 2016), 이는 정밀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역량변화율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로 정리될 수 있다(김윤두 등, 2013; 정혜경 등, 2015). 또한 주민들이 협력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자본이 쌓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O'Brien *et al.*, 1991; Putnam, 1993; O'Brien *et al.*, 1998).

3. 리더 역량과 주민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상향식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공동체는 내부 구성원인 리더와 주민들의 역량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리더 역량과 주민역량이 모두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리더 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에 비해 주민역량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조직이나 기업체, 학교 재학생 등의 조직구성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농촌 주민들의 직업 능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조영숙 등, 2008).

농촌 마을 리더 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허장·정기환, 2003; 박은식 등, 2006a; 박은식 등, 2006b; 박한식·김남조, 2008; 오승영 등, 2010; 윤준상 등, 2015; 윤준상 등, 2017). 허장·정기환(2003)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1,35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13부의 유효설문을 확보하였고, 빈도수 및 주요변수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3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심층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리더의 활동이 중요하며, 새로운 농업이나 기술을 도입·개발하여 신념과 열의를 가지고 실천하는 '신행' 리더가 마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리더의 혁신적 사고도 마을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도 농촌 마을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은식 등(2006a)은 91개 농촌 관광 마을의 리더 각 3명씩을 대상으로 24개 영역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설문지 273개를 중요·성취도 분석(IPA)을 하여, 지역 리더의 역량개발 요구가 높았음을 밝혔고, 학력과 역할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 경험 있는 지역 리더들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은식 등(2006b)은 91개 마을을 대상으로 54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IPA 분석을 통하여 역할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역량이 다름을 밝혀냈다. 박한식 · 김남조(2008)는 우수 성과자 11명에 대한 행동사건면접(BEI)을 통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행동지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82개의 역량을 농촌관광마을 리더 9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76개의 문항으로 압축하고, 역량과 성과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성과수준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역량과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오승영 등(2010)은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우수 마을리더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41개의 역량을 추출하였고,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33개의 예비 핵심역량을 설정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28개의 핵심역량을 최종 도출하였다. 윤준상 등(2015)은 농촌 관광 마을 119개 마을의 추진위원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각 마을당 1부씩만 회수하여 유효설문지 119매를 최종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농촌마을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배려심, 지적추구, 동기부여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고, 농촌마을의 사업성과는 해당 농촌 마을 리더들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윤준상 등(2017)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마을 132개 마을 중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와 주민 참여율에 따른 리더십과 경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유효설문 101부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직형태에 따른 차이는 경영 역량의 홍보마케팅 영역, 재무관리 영역과 매출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 비(非)법인에 비해 법인 형태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촌 마을 주민역량과 관련된 연구도 있다(Allen and Gibson, 1987; Ayres and Potter, 1989; 조영숙 등, 2008; 김경희 등, 2016; 김민 · 이희정, 2016; 박대식 등, 2016). Allen and Gibson(1987)은 22개의 제안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사업 및 생활에 있어 다양한 차원의 중요성과 만족에 대한 리더와 주민들 간의 인식 비교를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수준에서 리더들과 주민들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관성이 있었지만, 특정 작업이나 프로젝트 수준에서 볼 때 그 견해는 상당히 달랐다. Ayres and Potter(1989)는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리더와 주민들의 태도를 비교하여 몇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태도 비교에서 리더는 사회 경제적 특성에서 주민들과 크게 다르며 변화 지향적이었다. 또한 지역사회 애착심과 지역사회 참여도는 지역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조영숙 등(2008)에 의하면 장수군 농가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20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직업 기초 능력이 가장 높았고, 시민 의식 능력, 기초 분해 능력, 직업 전환 능력, 전문 직업 능력, 여가 문화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 · 이희정(2016)은 6년간 남양주시 능내1리의 지역사회에 참여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사업 운영요소가 주민의 개인적 역량변화, 대인적 역량변화, 사회정치적 역량변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박대식 등(2016)은 농촌주민 3000명, 면 단위 사회단체 120개, 이장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3개 지역(진안, 거창, 정선)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으며, 독일 출장 조사를 통해 마르부르크(Marburg)의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복지 활성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경제적 역량과 정보 기술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신뢰 및 지역 공동체 의식, 상호 협력 등의 사회적 역량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김경희 등(2016)은 자립형 농촌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전국 8개 마을의 자료를 현장조사와 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참여관찰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계는 인식공유, 방향설정, 목표 구체화, 역량강화, 비전설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더와 주민들 간의 태도나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도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농촌 개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주민 참여에 의한 상향식 접근이 중요한 흐름이 되었고, 마을은 역량강화를 통해 무한 경쟁의 구도에 공동체수준을 겨룰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리더와 주민이나 그 간의 연구들은 농촌 리더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리더와 주민은 필요로 하는 역량과 공동체를 위한 역할이 다르기 마련이다. 이에 주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 특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농촌 지역 개발 정책은 농촌지역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와 주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김두순 등, 2013).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단순 정책실행자에서 전 과정에 걸친 정책결정과 정책실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리더 만을 연구하던 흐름에서 더 나가 주민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마을 주민의 역량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리더의 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마을 개발을 수행해 오면서 요구되는 주민역량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농촌 마을 주민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Spencer and Spencer(1993)의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의 6개 역량군(competency clusters)에 속한 하부 역량들 중 25개 문항¹⁾을 선정하였다. 측정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연간 소득, 거주 기간, 직업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측정 척도는 명목척도와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10개 지자체 중 마을 개발이 진행 중인 16개 마을²⁾의 주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이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지도자 경험이 없는 주민들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우선 연구자가 마을 개발에 적극적인 곳을 선정하여 해당 마을 이장(위원장)들과의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방문일을 정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마을 방문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장(위원장)님께 연락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우편 발송을 통해

조사와 반송 봉투를 통해 회수 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최초 300부가 배포 되었으나, 289부가 회수되었고, 251부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for windows ver. 24)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교차분석, t-test, F-test 등이 이루어졌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변수(variable)와 요인수(factor number)의 선택에는 Hair *et al.*(2006)에 의해 제시된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0.4이상, 요인 고유치(eigen value) 1이상, 원 변량의 60%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으로는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주민역량에 대한 각 요인들의 총합 평균을 구한 후에 워드방식(Ward method)의 제곱한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효율적인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덴드로그램(dendrogram)과 군집화 일정표를 참고하여 유효한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얻은 군집해로부터 각각의 최초 군집중심(initial seed) 값을 구하여 비계층적인 군집분석인 K-means를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농촌 마을의 주민역량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리더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분석하였다(표 1).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자 142명(56.6%)으로 여자 109명(43.4%) 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61세부터 70세 이하가 93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51세부터 60세 이하가 69명(27.5%), 71세 이상이 53명(21.1%), 50세 이하가 36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1년 이상이 112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는 10년 이하가 74명으로 29.5%, 10년부

표 1. 응답자의 특성

(n=251)

구분		빈도(명)	구성비(%)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자	142	56.6	학력	초졸 이하	50	19.9
	여자	109	43.4		중졸	74	29.5
연령대	50세 이하	36	14.3		고졸	85	33.9
	51~60세	69	27.5		대졸 이상	42	16.7
	61~70세	93	37.1	연간 소득	1500만 원 이하	102	40.6
	71세 이상	53	21.1		1501~3000만원	76	30.3
거주기간	10년 이하	74	29.5		3001~4500만원	49	19.5
	10~30년	65	25.9		4500만 원 이상	24	9.6
	31년 이상	112	44.6				

터 30년 이하가 65명으로 25.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85명(33.9%), 중졸이 74명(29.5%), 초졸 이하가 50명(19.9%), 대졸 이상이 42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소득은 1500만 원 이하가 102명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는 1501만원부터 3000만원 이하 76명으로 30.3%, 3001만원부터 4500만 원 이하 49명으로 19.5%, 4500만 원 이상이 24명으로 9.6% 순으로 나타났다.

2. 주민역량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는데, 이 4개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65.015%이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값은 0.941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3336.374이고, 이에 대한 유의 확률은 0.0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요인1은 '나의 업무 관련 지식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른 주민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신한다', '지식의 기반을 확대한다', '복잡한 문제나 상황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작업 중 발생하는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복잡한 문제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한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자신있게 밝힌다' 등 8개의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변량의 20.391%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직무 해결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 해결 역량'으로 명명 되었다.

요인2는 '리더에게 명확한 역할과 임무를 주장한다',

'업무 처리에 있어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주민들의 기분과 감정을 파악한다', '주민들의 기분과 감정을 파악한다', '주민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회나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한다' 등 5개의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변량의 16.063%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의사 소통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 소통 역량'으로 명명 되었다.

요인3은 '마을 관련 업무에 있어서 보다 높은 성과를 원한다', '나는 마을 일이 더 잘 되도록 행동한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주민들에게 도움 되기 위해 추가 노력을 한다', '행동이나 말의 영향을 미리 고려한다' 등 5개의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변량의 15.461%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조직 몰입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 몰입 역량'으로 명명되었다.

요인4는 '마을 발전 전략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마을 개발의 완수를 위해 추가 업무 시간을 할애한다', '리더가 설정한 목표를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한다', '주민들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 준다' 등 5개의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변량의 13.100%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조직 융화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 융화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평균값을 보면, '조직 몰입 역량'이 3.9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의사 소통 역량' 3.769, '조직 융화 역량' 3.642 순으로 나타났고, '직무 해결 역량'이 3.427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농촌 마을의 주민역량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직무 해결 역량, 의사 소통 역

표 2. 주민역량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 수	요인 적재량	요인 고유치	분산 설명력 (%)	Cronbach's α	평균
직무 해결 역량	나의 업무관련 지식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752	10.570	20.391	.907	3.427
	다른 주민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728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신한다.	.706				
	지식의 기반을 확대한다.	.698				
	복잡한 문제나 상황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628				
	작업 중 발생하는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605				
	복잡한 문제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한다.	.571				
	의견충돌이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자신있게 밝힌다.	.565				
의사 소통 역량	리더에게 명확한 역할과 임무를 주장한다.	.731	1.513	16.063	.835	3.769
	업무 처리에 있어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705				
	주민들의 기분과 감정을 파악한다.	.672				
	주민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인다.	.641				
조직 몰입 역량	나는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회나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한다.	.560	1.211	15.461	.853	3.961
	마을 관련 업무에 있어서 보다 높은 성과를 원한다.	.720				
	나는 마을 일이 더 잘 되도록 행동한다.	.713				
	마을의 발전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703				
	주민들에게 도움 되기 위해 추가 노력을 한다.	.582				
조직 융화 역량	행동이나 말의 영향을 미리 고려한다.	.549	1.009	13.100	.821	3.642
	마을 발전 전략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704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마을 개발의 완수를 위해 추가 업무시간을 할애한다.	.643				
	리더가 설정한 목표를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한다.	.558				
	주민들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 준다.	.556				

* 분산 누적값=65.015% / KMO=.941 / Bartlett's Test=3336.374($p=0.000$).

량, 조직 몰입 역량, 조직 융화 역량 등 4개의 요인이 요인범주 내에서 평가항목들의 결합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 요인 모두 신뢰도 계수가 0.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군집분석 및 집단별 분석

군집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군집의 수는 2개로 결정되었으며(표 3), 군집이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를 도출하였다(표 4). 이에 해당하는 적중률(hit ratio)은 98.8%로 나타나 각 군집이 올바르게

분류 되었으며 군집분석의 결과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두 군집에 대한 군집 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측정된 직무 해결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조직 몰입 역량, 조직 융화 역량 등의 주민역량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군집 1은 '역량 고 집단', 군집 2는 '역량 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주민역량의 수준에 따라 군집화 된 역량 고 집단과 역량 저 집단을 대상으로 리더 경험이 없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을 주민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역량 고 집단의 경우 남자가 87명(63.97%)으로 여자 49명(36.02%)보다 많았고, 역량 저 집단의 경우 남자 55명(47.82%), 여자 60명(52.17%)로 큰 차이가 없었다(표 5). 성별에 따라 역량 고 집단과 역량 저 집단 간의 유의한

표 3.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단계	결합군집		계수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다음단계
	군집1	군집2		군집1	군집2	
1	11	238	0,000	0	0	107
2	207	229	0,000	0	0	4
3	70	226	0,000	0	0	42
⋮						
247	6	8	156,064	245	242	248
248	6	27	198,056	247	237	250
249	1	5	248,780	246	243	250
250	1	6	477,651	249	248	0
군집의 수		계수	계수변화량	계수 변화율(%)		
4		156,064	14,234	9,121		
3		198,056	41,992	21,202		
2		248,780	50,723	20,389		
1		477,651	228,870	47,916		

표 4. 주민역량에 대한 군집-판별분석 결과

구분	직무 해결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조직 물입 역량	조직 융화 역량
역량 고 집단 (n=136, 54.2%)	3,898	4,175	4,369	4,134
역량 저 집단 (n=115, 45.8%)	2,870	3,290	3,478	3,060
평균	3,427	3,769	3,961	3,642
F 값	274.197*	214.738*	197.758*	283.434*

* hit ratio=98.8%, $p<0.01$.

차이가 있었다($p<0.01$).

연간소득은 역량 고 집단의 경우 1500만원 이하가 57명(41.91%), 1501만원부터 3000만원 이하가 32명(23.52%), 3001만원부터 4500만원 이하가 30명(20.05%), 4501만원 이상이 17명(12.50%)로 나타났고, 역량 저 집단의 경우 1500만원 이하가 45명(39.13%), 1501만원부터 3000만원 이하가 44명(38.26%), 3001만원부터 4500만원 이하가 19명(16.52%), 4501만원 이상이 7명(6.08%)로 나타났다. 연간소득에 따라 역량 고 집단과 역량 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학력은 두 집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 거주기간도 두 집단 모두 3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도 두 집단 모두 61세부터 70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학력, 거주기간 및 연령대의 역량집단별 분석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 마을 주민의 역량 특성을 군집별로 살펴보았다(표 6). 지역사회 애착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9.008$, $p<0.01$), 역량 고 집단의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사회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7.326$, $p<0.01$), 역량 고 집단의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 관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9.558$, $p<0.01$), 역량 고 집단의 주민들의 지역사회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t=5.905$, $p<0.01$), 역량 고 집단의 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군집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석

구분	상세 구분	역량 고 집단 (n=136,%)	역량 저 집단 (n=115,%)	Total(%)	χ^2
성별	남자	87(63.97)	55(47.82)	142(56.6)	6.611**
	여자	49(36.02)	60(52.17)	109(43.4)	
학력	초졸 이하	22(16.17)	28(24.34)	50(19.9)	4.822
	중졸	41(30.14)	33(28.69)	74(29.5)	
	고졸	45(33.08)	40(34.78)	85(33.9)	
	대졸 이상	28(20.58)	14(12.17)	42(16.7)	
거주기간	10년이하	45(33.08)	29(25.21)	74(29.5)	3.113
	10~30년	37(27.20)	28(24.34)	65(25.9)	
	31년 이상	54(39.70)	58(50.43)	112(44.6)	
연령대	50세 이하	20(14.70)	16(13.91)	36(14.3)	1.841
	51~60세	35(25.73)	34(29.56)	69(27.5)	
	61~70세	55(40.44)	38(33.04)	93(37.1)	
	71세 이상	26(19.11)	27(23.47)	53(21.1)	
연간소득	1500만원 이하	57(41.91)	45(39.13)	102(40.6)	8.243*
	1501~3000만원 이하	32(23.52)	44(38.26)	76(30.3)	
	3001~4500만원 이하	30(20.05)	19(16.52)	49(19.5)	
	4501만원 이상	17(12.50)	7(6.08)	24(9.6)	

* $p<0.05$, ** $p<0.01$.

표 6. 군집별 마을 개발 관련 특성 분석

구분	평균		전체평균	표준편차	t-값
	역량 고 집단 (n=136)	역량 저 집단 (n=115)			
지역사회 애착심	4.36	3.50	3.97	.862	9.008**
지역사회 참여도	4.20	3.37	3.82	.978	7.326**
지역사회 관여도	4.50	3.65	4.11	.817	9.558**
지역사회 만족도	3.91	3.22	3.59	.989	5.905**

** $p<0.01$.

V. 결론 및 시사점

‘농촌 마을은 공동체다’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 데(김두순, 2016), 이는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수많은 사례들로 알 수 있다. 이미 농촌 마을들은 지역 주민들의 협력하는 과정이 어떤 특정 목표의 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역사회 개발의 보편적인 원리(O'Brien *et al.*, 1998)를 실천하고 있다.

농촌 개발 정책이 상향식 개발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주민역량강화에 의한 주민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

이 되었다. 그럼에도 농촌 마을 개발 사업의 성패에 핵심적인 요인은 농촌 리더로 인식되어 왔고, 관련 연구나 정책들도 리더 역량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마을 주민의 역량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농촌 마을의 주민역량은 성취와 행동 역량군, 대인 서비스 역량군, 영향력 역량군, 관리 역량군, 인지 역량군, 개인 효과성 역량군의 6개 역량군과 관련된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농촌 마을의 주민역량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직무 해결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조직 몰입 역량, 조직 융화 역량 등 4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주민역

량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에서는 역량 고 집단과 역량 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것은 개별 역량 요인별로 집단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량으로 구분되어 역량이 높은 집단과 역량이 낮은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두 군집 간에 인구 사회학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중 학력, 거주기간, 연령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과 연간소득 항목에서는 역량 고 집단과 역량 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군집 간에 마을 개발 관련 역량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애착심,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사회 관여도, 그리고 지역사회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Ayres and Potter (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정리하면, 농촌 마을의 상향식 개발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과정에서 역량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Allen and Gibson (1987)이 특정 작업이나 프로젝트 수준에서 리더와 주민 간에는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기존 리더 역량 연구에서 밝힌 역량과는 다른 역량이 도출되었다. 즉, 농촌 마을에 필요한 주민역량은 직무 해결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조직 몰입 역량, 조직 융화 역량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명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역량 고 집단과 역량 저 집단은 인구 사회학적으로는 성별과 연간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역량 고 집단이 마을 개발 특성 분석을 위한 문항인 지역사회 애착심,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사회 관여도, 지역사회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정 지역사회는 외부사회와의 차별성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부적으로는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사회문화적·경제적·물리환경적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상징적 의미를 지역주민들이 내재화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이 구성·재구성되게 된다(홍성흙, 2001).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농촌 마을 구성원의 역량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은 리더와 주민 모

두인 것이다. 특정 작업이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리더와 주민 간에 견해의 차이가 발생한다(Allen and Gibson, 1987)는 연구 결과처럼 리더와 주민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르다. 그동안 리더 중심으로만 실행되던 농촌 개발 정책의 흐름이 이제는 주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촌 마을 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자 지역정체성 확보의 중요한 주체로 주민을 바라봐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지역을 충남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샘플수는 251개로 다소 적었다.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조사 지역과 샘플 수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농촌 마을의 초고령화로 인해 마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지 못하였다. 대부분 50세 이상의 주민들이 조사에 참여를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마을 거주기간이 짧고 주민들의 개인 역량이 높은 신규 조성 마을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주민역량과 마을 진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註

- 1) 25개 문항은 농촌 마을 주민역량 측정은 성취지향성 역량(2문항), 질서, 품질, 정확성에 대한 관심 역량(1문항), 주도성 역량(2문항), 정보 수집 역량(1문항), 대인 이해 역량(2문항), 고객 지향성 역량(2문항), 영향력 역량(1문항), 관계 형성 역량(1문항), 타인 육성 역량(1문항), 지시 역량(1문항), 팀워크 협력 역량(1문항), 팀 리더십 역량(1문항), 분석적 사고 역량(1문항), 개념적 사고 역량(1문항),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역량(3문항), 자기 조절 역량(1문항), 자기 확신(1문항), 유연성 역량(1문항), 조직 헌신 역량(1문항) 등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충청남도 내 10개 시·군 16개 마을은 공주시(내흥2리), 보령시(음현리, 성주4리, 제석2리), 아산시(월랑2리), 논산시(우곤2리, 채운2리), 당진시(반촌2리, 사관리), 금산군(신촌1리, 조정리), 서천군(등고리), 태안군(고남1리, 중장4리, 중장5리), 부여군(비당2리), 예산군(창정리)을 말한다.

참고문헌

- 김경희·오대민·정충섭, 2016,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학습 단계와 주민역량강화: 자립형 농촌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4(1), 49-61.
- 김두순, 2016, “농촌 마을 역량의 축적,” 농촌지도와 개발, 23(4), 431-439.
- 김두순·김성록·배성의, 2013,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업무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 937-952.
- 김민·이희정, 2016, “도시근교 농촌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역량 효과분석,” 도시정책연구, 7(3), 27-46.
- 김영정, 2008, “상향식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조건과 과제: 신흥력사업 사례분석,” 지역사회학, 10(1), 53-70.
- 김윤두·김사균·김효미·채수호, 2013, “농업인의 개인역량과 조직성과간의 연관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1), 143-172.
- 김정남·이동훈·송연주·김홍석·홍석민, 2012,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성격특성과 핵심역량: 석유화학 기업을 중심으로,” HRD 연구, 14(2), 79-106.
- 박대식·안석·오정훈, 2016,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수진·나주몽, 2014,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실천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공유 가치창출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6(2), 93-124.
- 박은식·이채식·박덕병·고정숙, 2006a, “지역사회리더 리더십역량의 중요-성취도 분석,” 농촌계획, 12(1), 59-66.
- 박은식·이채식·고정숙·조영숙·황대용·박덕병, 2006b, “농촌지역사회 리더의 역할지위별 리더십역량 중요성 취도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1), 3-10.
- 박찬욱·조아라·안성민, 2015, “B2B 영업사원의 역량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20(3), 31-63.
- 박한식·김남조, 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분석과 역량모델 개발,” 관광연구, 23(3), 239-256.
- 서명선, 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역량이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4(2), 141-173.
- 소순열, 2010, “농촌마을 개발과 주민참여,” 지역사회연구, 18(2), 113-131.
- 손성곤·김형철·윤종록, 2015, “외식업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역량과 고객서비스몰입, 경영성과간의 구조적 관계,” 경영컨설팅연구, 15(1), 73-85.
- 오승영·박천오·진중순, 2010,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연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1), 191-217.
- 오현석·배진현·윤정이, 2010, “자동차 영업사원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2(1), 41-68.
- 오형은·김용근, 2015, “주민참여를 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 연구: 정읍시 내장상동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5), 121-131.
- 윤준상·김소윤·김성록, 2015, “농촌지역 마을 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4(2), 319-327.
- 윤준상·김성록·김현상·김두순, 2017,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 조직 형태와 주민참여율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1), 15-30.
- 이양수·최외출, 2013, “1970년대 상향식 지역사회발전 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추진동력: 신뢰와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1(1), 125-146.
- 이원주·이유직, 2013, “단계별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농촌마을만들기의 효과 연구: 전라북도 진안군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9(4), 269-281.
- 이현정, 2013, “지역사회 개발에서 자체지도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1(1), 207-236.
- 정혜경·이순석·강신곤·정성욱, 2015, “강소농사업 참여농가의 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2(3), 261-268.
- 조소진·정환영, 2017, “역량강화 중심의 마을 만들기 참여에 따른 주민인식변화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89-105.
- 조영숙·김병진·황대용·강경하, 2008, “장수군 주민의 핵심역량 수준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55-78.
- 허장·정기환, 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13(1), 51-83.
- 홍성흡, 2001, “지역활성화 운동과 지역정체성의 형성 및 분화양상: 일본 탕포원정의 핵심 활성화 운동 집단의 운동전략과 역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2), 55-77.
- Allen, L. and Gibson, R., 1987, Perceptions of com-

- munity life and services: A comparison between leaders and community resident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18(1), 89-103.
- Ayres, J.S. and Potter, H.R., 1989, Attitudes toward community change: A comparison between rural leaders and resident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20(1), 1-18.
- Batten, T.R., 1957, *Communities and Their Develop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oyatzis, R.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Hoboken, NJ: Wiley-Blackwell.
- Cary, L.J., 1970, *Community Development as a Process*,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Cavaye, J., 2006, *Understanding Community Development*, Mount Lofty, Queensland: Cavaye Community Development.
- Chaskin, R.J., 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 A definitional framework and case studies from a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Urban Affairs Review*, 36(3), 291-323.
- Durham, A., 1960, *Community Development*, NY: Thomas Crowell Company Inc.
- Fletcher, S., 1991, *Nvqs, Standards and Competence*, London: Kogan Page.
- Friedmann, J., 1987, *Planning in the Public Domain: From Knowledge to A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mann, J., 1992, *Empowerment: The Politics of Alternative Development*, Cambridge, MA: Wiley-Blackwell.
- Gannon, A., 1998, Mastering change: A new paradigm in building positive futures for rural communities, *Positive Rural Futures Conference*(<http://www.regional.org.au/au/prf/1998/017-041-02.htm>).
- Goodman R.M., Speers, M.A., McLeroy, K., Fawcett, S., Kegler, M., Parker, E., Smith, S.R., Sterling, T.D., and Wallerstein, N., 1998, Identifying and defining th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to provide a basis for measure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5(3), 259-278.
- Green, P.C., 1999, *Building Robust Competencies: Linking Human Resource Systems to Organizational Strateg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Hair, J.F., Black, W.C., Babin, B.J., Anderson, R.E., and Tatham, R.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7-219.
- Howard, J. and Wheeler, J., 2015, What community develop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new glob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0(4), 552-570.
- Jacobs, R., 1989, Getting the measure of management competence, *Personnel Management*, 21(6), 32-37.
- Kretzmann, J.P. and McKnight, J.L.,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 Chicago, IL: ACTA Publications.
- Lucia, A.D. and Lepsinger, R., 1999, *Competency Models: Pinpointing Critical Success Factors in Organizatio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nnion, J., 1996, Partnership,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Rural development based on local bottom-up strategies, *Leader Magazine*, 12(10), 6-10.
- McClelland, D.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cLagan, P., 1989, Models for hard practice,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43(9), 49-59.
- Minkler, M., 2005, *Community Organizing and Community Building for Health*,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Mondros, J. and Wison, S., 1994, *Organizing for Power and Empowerment*,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Murray, M. and Dunn, L., 1995, Capacity building for rural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89-97.
- Newlands, C.A., 1981, Local government capacity building, *Urban Affairs Papers*, 3(1), 4-5.
- O'Brien, D.J., Hassinger, E.W., and Brown, R.B., 1991,

- The social networks of leaders in more and less viable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56(4), 669-711.
- O'Brien, D.J., Rardeke, A., and Hassinger, E.W., 1998, The social networks of leaders in more and less viable communities six years later: A research note, *Rural Sociology*, 63(1), 109-127.
- Parry, S.B., 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Competency studies can help you make HR decisions, *Training*, 33(7), 48-56.
- Putnam, R.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Rapp, C., Shera, W., and Kisthardt, W., 1993, Research Strategies for consumer empowerment of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Social Work*, 38(6), 727-736.
- Sanders, I.T., 1958, Theories of community development, *Rural Sociology*, 23(1), 1-12.
- Schippmann, J.S., 1999, *Strategic Job Modeling: Working at the Core of Integrated Human Resourc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pencer, L.M. and Spencer, S.M., 2008,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Hoboken, NY: Wiley-Blackwell.
- Staples, L., 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2), 29-42.
- Yang, Y., 2016, Community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Revisiting South Korean rural modernization of the 1970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1(3), 1-17.
- 교신 : 김성록, 32439,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이메일: isoiso@kongju.ac.kr)
- Correspondence : Sung-Rok Kim, 32439,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Korea, Faculty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isoiso@kongju.ac.kr)
- 투 고 일: 2017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10일
투고확정일: 2017년 11월 23일

